

팀 득점 37%나 책임졌다 추신수 방망이는 '알토란'

앤서니 기자의 추신수스토리

"승리 위해 헌신" 악타 감독 극찬

요즘 추신수(사진)가 클리블랜드 라인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전 바퀴나 엔진이 자동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너무나 뻔한 설명이다.

만약 추신수가 없다면 클리블랜드의 공격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시즌 21경기에서 추신수의 타율은 0.338, 4개의 홈런과 15타점, 그리고 적시타 아니면 득점으로 클리블랜드 총득점의 36.5%를 책임졌다. 악타 감독도 "그가 없으면 우리 팀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말할 정도다.

올해 들어서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인 클리블랜드는 시즌 초반 놀라운 공격력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은 팀의 4번 타자 오스틴 컨스가 지난 LA에인절스와의 3연전 중 마지막 2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는 것. 만약 컨스가 계속 활약한다면 추신수가 3번 타수에서 가지는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추신수는 공격에 있어 많은 하중을 짊어지고 있지만 이를 묵묵히 해내고 있다. 시즌 개막 이후 첫 번째 주 외에는 이번 달 내 일관성 있게 득점을 올리고 있다.



악타 감독은 "추신수는 목표가 정확하다"며 "(개막 직후)시즌 두 경기에서는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삼진이 많고 볼넷을 끌러나간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적시타를 때려내며 점수를 올리고 있다. 그가 베이스에 있을 때 팀이 이기기 위한 득점 키(key)를 쥐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위대한 시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칭찬했다.

이번 시즌에서 클리블랜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단정하기는 힘들다. 이들은 시즌 초반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투수력은 많은 팬들의 기대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공격에서는 꾸준한 점수를 뽑으려는 노력이 기대처럼 잘 되지 않았다.

클리블랜드는 29일까지 9승12패를 기록하며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5개 팀 중에서 3위로 나쁜 편은 아니다. 추신수는 개인적인 성공의 크고 작음을 떠나 팀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악타 감독도 "추신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진다면 그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는 팀의 승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인정했다.

만약 클리블랜드의 공격력이 좀 더 살아난다면 더 많은 승리를 거둘 것이다. 지금은 중견수 그레디 사이즈모어와 지명타자 트래비스 해프너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고마운 것은 추신수가 클리블랜드가 순위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추신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악타 감독은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앤서니 카스트로빈스? 1년 내내 클리블랜드와 함께 하고 있는 MLB.com 소속 담당 기자다. 스토브리코와 스프링캠프부터 출발해 개막 후에는 홈·원정경기를 가리지 않고 클리블랜드의 162전체임을 모두 현장에서 취재하며 바로 결재 추신수를 지켜보고 있다.

추신수, 5연속경기 멀티히트

LA에인절스전 2안타... 타율 0.338

클리블랜드 추신수(28)가 5연속경기 멀티히트를 작성했다. 29일(한국시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의 원정 3차전에서 4타수 2안타를 때렸다. 도루한 개를 곁들였고, 타율은 0.338(77타수 26안타)로 뛰어올랐다. 팀내에선 단연 독

보적이고, 아메리칸리그 8위, 메이저리그 전체 13위다. 시애틀 스즈키 이치로(0.330)보다 높다. 더 주목할 건 출루율. 21게임 전 경기에 나선 그는 출루율 0.452를 기록 중인데 이는 아메리칸리그 2위, 빅리그 전체 3위의 뛰어난 성적이다.

1회 3루수 땅볼에 그친 추신수는 4회 선두타자로 등장, 중전안타를 때린 뒤 2루도

루(4호)에 성공했다. 3루까지 다시 욕심을 냈지만 이는 실책. 6회 세 번째 타석은 2루수 내야안타가 됐고, 마지막 타석은 투수 땅볼이었다.

클리블랜드는 9회 끝내기 안타를 허용하며 3-4로 패했다. 원정 9연전을 마친 추신수는 하루 휴식을 취한 뒤 1일 오전 8시 5분 프로그레스비필드에서 열리는 미네소타와의 홈경기에 출전한다.

김도훈 기자 dohoney@donga.com



멍하니 바라본 뒷모습 삼성 조동찬(왼쪽)이 잠실 LG전 7회 2사 후 좌중간 깊숙한 타구를 때린 뒤 여유있게 2루에 안착했다. 2루수 박경수가 뒤늦게 태그를 시도했지만 별무소득. 정실 | 연합뉴스

▶ 콤팩트뉴스

허벅지 통증 박찬호, MRI 진단 결과 이상 없어
오른쪽 허벅지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해 재활을 일시 중단한 뉴욕 양키스 박찬호의 몸 상태에 관해 'MRI 진단 결과, 추가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뉴욕 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박찬호는 플로리다주 탬파의 양키스 콤플렉스에 계속 남아 재활을 진행할 계획이다.

천안복일고, 대통령배고교야구 16강 진출
이정훈 감독이 이끄는 천안복일고야구 29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44회 대통령배전국고교대회 경동고와의 1회전에서 난타전 끝에 10-7로 승리, 16강에 진출했다. 선발 임규빈이 7.2이닝 7실점(4자책점)으로 승리투수가 됐고, 4번 홍성갑이 3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타선을 이끌었다.

KIA, 야구체험·사인회 등 어린이날 이벤트
KIA가 5월 5일 어린이날 광주 한화전을 앞두고 야구체험 이벤트, 만화 캐릭터의 공연, 선수단 사인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어린이 관객에게 티셔츠 등 다양한 선물도 증정한다.

KIA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 야구용품 세트와 유니폼, 캐릭터상품 등도 30% 할인해 판매한다.

팔꿈치 재활 임태훈, 2군경기 10이닝 무실점
팔꿈치 통증으로 재활 중인 투수 임태훈이 29일 벅스구장에서 열린 경찰청과의 2군 경기에서 9회 1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데뷔 후 첫 2군 등판. 공 11개를 던져 삼진 1개를 잡았고, 직구 최고구속은 145km를 찍었다.

편민 | 민성기 기자 min3654@donga.com

김태균 3안타 폭발... 4타점 쇼!

세이부전 결승타...타율 0.303
승업 1안타... 범호 볼넷만 2개

지바 롯데 4번타자 김태균(28·사진)이 일본 진출 후 첫 경기 4타점의 맹타로 22일 만에 3할 타율로 복귀했다.

2경기 연속 선발출장한 요미우리 이승엽(34)은 시즌 6번째 안타를 신고하며 경쟁자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어렵사리 잡은 주전 1루수 탈환의 기회를 살려나갔다.

김태균은 29일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세이부돔에서 열린 세이부와의 원정경기에서 4번 1루수로 선발출장해 선제 결승타를 포함해 5타수 3안타 4타점 2득점을 올렸다. 3일 오릭스전에서 4타수 4안타를 친 적이 있어 3안타 이상 경기는 2번째다. 덕분에 시즌 타율은 0.303으로 경중 뛰었고 시즌 타점도 22개로 늘어났다.

김태균은 1회 1사 1·3루 첫 타석부터 폭발했다. 세이부 우완 선발 다나가 야스히로를 상대로 볼 카운트 0-1에서 몸쪽 직구를 우전적시타로 연결했다. 지바 롯데는 김태균의 적시타를 바탕으로



일본 진출 후 첫 경기 4타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지바 롯데 김태균이 29일 세이부전에서 1회 결승 적시타를 때리고 있다. 사사타(일본) | 교도연합뉴스

1회 3점을 선취해 주도권을 틀어쥐었다. 선두타자로 나선 3회에 우익수 플라이에 그쳤으나 6-2로 앞선 4회 무사 3루서는 우완 구원 오카모토 요스케를 중전 적시타로 두들겼다. 이어 5회 2사 1·2루 4번째 타석에서도 오카모토로부터 중전적시타를 뽑았다. 7회 5번째 타석은 삼진. 그러나 9-5로 앞선 9회 1사 만루 마지막 타석에서 좌완 구원 호시노 도모키에게서 승리를 굳히는 우익수 희생플라이를 빼앗아 팀의 10-5 승리에 앞장섰다.

나고야돔 주니치전에 7번 1루수로 나선 이승엽은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2회 첫 타석에서 중전안타를 쳐 이를 연속 홈런의 기세를 이어가는 듯했으나 나머지 타석은 침묵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소프트뱅크 이범호(29)도 라쿠텐과의 야후돔 홈경기에서 모처럼 8번 지명타자로 선발기용됐으나 볼넷 2개만을 얻었을 뿐 2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타격부진 강정호... "수비부터 잘해!"

공격 침묵 수비실책 악영향
부담감 떨치고 에러 줄여야

16일 청주구장. 한화 장종훈 타격코치는 넥센 강정호(사진)를 가리켜 "뭍만 안 다치면 돈 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공을 맞는 센스와 파워, 그리고 강한 어깨까지 갖춘 만능선수라는 의미. 지난 시즌 0.286의 타율에 23홈런 81타점으로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 후보까지 거론되던 그였다.

4월 중순 강정호는 줄곧 4번과 선발 유격수 자리를 도맡았다. 장코치는 "나도 유격수와 4번 타자를 동시에 한 적은 한 해 뿐(1990년)"이라면서 "공수에 모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역할"이라고 했다. 강정호 역시 "타석에서 삼진에 병살까지 치고, 수비에서 에러 하나 하면 죽을 맛"이라며 부담감을 감추지 않았다.

4번 배치 이후 극심한 타격침체. 결국 강정호는 22일 6번 타수로 내려갔고, 28·29일 사직 롯데전에서는 올 시즌 처음 선발라인업에서 제외됐다. 현재 타율은 0.239. 타격에는 기록이 있을 수



있다. 강정호는 지난 시즌에도 4월 타율이 0.162로 부진했지만 5월부터 치고 올라왔다. 중심타자가 되면서 상대 견제가 심해진 탓도 있다. 문제는 주중만 타격 페이스가 수비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점이다.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과감한 대시를 하지 못하고, 몰러나면 서 포구하는 장면이 잦아졌다. 최근 22경기에서 실책은 무려 9개. 전 구단 통틀어 최다다.

넥센 홈경기 수비코치는 "가장 답답한 사람은 본인"이라면서 "워낙 착한 성격이라 직설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어떤 과정이 잘못되었는지를 본인 스스로 깨닫도록 이해시키는 중"이라고 밝혔다. 홍 코치는 "유격수인 만큼 우선 수비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줄 것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직 | 전영희 기자 setupoman@donga.com

박마우스

●보편 볼수록 수염이 잘 어울리시네. 계속 면도 못하게 만들어드려야죠. (SK 박경완. 탑수룩해진 김성근 감독의 연승 징크스 수염을 보며)

●올라가는 2할 3푼 타자가 내려가는 3할3푼 타자보다 무서운 겁니다. (SK 박재상. 2할대 초반 타율에 머물고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 듣지는 게 아니라 KIA가 못 듣는 거야. (SK 김성근 감독. KIA 타격 페이스가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비밀이야기예요. (KIA 최희섭. 김선빈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다가)

●꼭 한두 번은 생각하고 말해야 해요. (두산 김경문 감독. 홍상삼의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다면)

●6일 쉬고 하루 근무하는데, 나간 날 홈런이나 맞고. (삼성 이승환. 최근 세이브 기회가 잘 오지 않는데 모처럼 등판하면 홈런을 허용한다고 한숨을 쉬며)

●응원하러 왔어요. 작년에도 저 2군에서 올라오고 나서부터 11연승했거든요. (롯데 김민성. 오른손 검지 관절상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 나온 이유를 묻자)

"조승수 왜 강판했냐면"... 김경문 감독의 속사정

▶ 런다운

"이번에는 막겠지, 막겠지 하면서 세 번을 기다렸는데..."
두산 김경문 감독은 마음이 편치 않은 듯 했다. 27일 대전 한화전 선발 조승수(사진)를 승리 투수 요건에 아웃카운트 하나만 남겨두고 강판시켰기 때문이다. 타선이 초반부터 큰 타격을 안겼지만 11-5까지 쫓기고 5회 2사 만루 위기를 만든 게 화근이었다. 김 감독은 29일 경기에 앞서 "대배 첫 승이었다면 그냥 놔둘지도 모르지만 더 기다리면 팀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됐다"고 털어놨다.

이미 베이징올림픽에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본 김 감독이다. 당시 대만전 선발은 봉준근(LG)이었는데, 그 때도 타선이 1회부터 7점을 뽑아 월드컵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봉준근이



4.1이닝 6실점하면서 예상보다 힘들게 이겼다. 김 감독은 "당시 투수코치가 '중근이가 국제대회에서 승리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그래서 내버려뒀는데 결국 그렇게 됐다. 중근이도 미안해하고 나도 많은 걸 느꼈다"고 했다. 그래도 위안거리가 있다. 조승수 다음 투수였던 오현택이 데뷔 첫 승을 올린 것이다. 김 감독은 "중근이가 올림픽 경험을 바탕으로 WBC에서 맹활약했다. 승수도 앞으로 더 좋은 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